

국립중앙대학교 국립중앙대 사람들 CWNU PEOPLE



2025 AUTUMN
CWNU Magazine
vol. 03

국립대학육성사업

Editor'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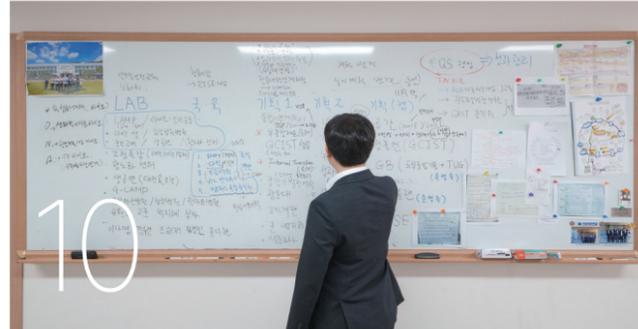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기술로 성장합니다.
LG전자 HVAC 연구센터는 산업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미래형 산학도시의 시작

지난 9월, 국립창원대학교가 LG전자의 최첨단 연구소를 품었습니다. 이름하여 'LG전자 HVAC 연구센터'. 국내 지방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LG전자 R&D 센터입니다. 단순한 유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물입니다. 총 500억 원 규모, 연면적 1만 3,200㎡. 히트펌프부터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냉난방 공조 기술이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연구동을 지역 산업혁신의 출발점이자 지방대학이 다시 지역을 살리는 증거라고 부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플랫폼이 되려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곳' 국립창원대학교 LG전자 HVAC 연구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산학도시'의 시작. 국립창원대학교의 사명감이 건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Contents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발행인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박민원
편집장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홍보원장
발행처
국립창원대학교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Tel. 055-213-2603

| | | |
|-------------------------------|--|----|
| Chapter 01. 사람&인터뷰 |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 | 06 |
| | 이희두 기획처장 | 10 |
| |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 14 |
| | 이승준 학내 공원조성 총괄 팀장 | 18 |
| | 김수빈 문화테크노학과 학생 | 22 |
| | 김석호 DNA+연구소 교수 | 26 |
| | 정장영 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 대표 | 30 |
| <hr/> | | |
| 쉬어가는 코너 | 포토에세이, 지금CWNU | 34 |
| <hr/> | | |
| Chapter 02. 이슈&스토리 | 국립창원대 DNA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의 연구 생태계 | 36 |
| | 국립창원대 한바퀴 2025년 봉림대동제-필용 우연의 조각이 하나로 모여! | 40 |
| | 감성 사진관 추억 속 그때 그 시절 | 44 |
| <hr/> | | |
| Chapter 03. 소식&뉴스 | 키워드로 보는 CWNU | 46 |
| | CWNU 뉴스 | 48 |



43년 전통의 힘 끈끈한 팀워크의 에너지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

1983년 창단된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는 올해로 43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시간 대학 탁구 무대에서 최강의 기량을 자랑해 온 국립창원대 탁구부는, 올해 7월 열린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녀 팀 모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전국 대회에서 우승과 금메달을 거두며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었다. 끊임없이 성장하며 강팀의 명성을 이어가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저력의 배경을 짚어보았다. write. 김달님 photo. 백동민

The Spirit of
Teamwork

table tennis



체계적인 훈련 환경이 만든 강한 팀

안정된 훈련 환경은 선수들이 오직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는 2023년 체육관 리모델링 이후, 전국 국립대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훈련 시설을 갖추게 됐다. 특히 국립대 최초로 전용 구장을 보유하고 있어, 선수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루틴에 맞춰 훈련할 수 있다. "시설이 좋아지면서 훈련 효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게 오윤경 감독과 선수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선수들의 체력과 심리, 기술을 함께 높이는 훈련 환경 또한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의 강점이다. 오윤경 감독은 대학원에서 공부한 스포츠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경기 중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한다. 기술 훈련 못지않게 심리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컨디션과 마음 상태를 세밀하게 살핀다.

오윤경 감독. "제가 선수로 될 때도 느꼈지만, 선수들을 만나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안이 쌓이고 자신감을 잃으면 슬럼프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선수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늘 관찰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 합니다. 감독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수에게 신뢰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지은 선수. "처음에는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제 장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너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경기 중에 흔들릴 때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제 루틴을 세우는 법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2022년부터는 전문 트레이닝이 더해지며 훈련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다나아짐(GYM) 운동재활센터'의 전문가들이 주 2회 학교를 찾아와 선수들의 체력 강화와 재활 트레이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선수들은 맞춤형 피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경기 후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훈련 환경과 전문 트레이닝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팀의 성장과 자신감을 이끄는 추진력이 된다.

리더십이 만든 믿음, 믿음이 만든 팀워크

그리고 그 중심에는, 23년간 팀을 이끌어온 오윤경 감독의 리더십이 있다. 그의 리더십은 통제보다 자율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선수들이 스스로 훈련의 의미를 찾아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한 '양'보다 훈련의 '질'을 중시한다. 그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공유하되, 자발적인 몰입이 기량을 키운다"고 강조한다. 경기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역시 그의 리더십을 이루는 중심 철학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상기시킨다.

오윤경 감독. "늘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느냐예요. 지더라도 과정이 좋았다면 충분히 칭찬할 수 있어요.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팀이 이기고 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하는 한 경기, 한 포인트에 집중해라. 그것들이 모여 팀의 성장이 된다.'"

김진택 선수. "감독님은 항상 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덕분에 경기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지고 있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런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의 또 다른 힘은 '끈끈한 팀워크'다. 오윤경 감독과 선수들 모두 한목소리로, 팀의 분위기와 단합력을 주요한 강점으로 꼽는다. 탁구는 개인 경기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응원과 신뢰가 경기력에 직결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팀의 분위기와 결속력이 이끌어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를 선택한 선수들도 있다.

박지은 선수. "고등학생 때 국립창원대 탁구부 선배님들의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어느 팀보다 열정적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때 '나도 저 팀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동료들과 후배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의 힘

이외에도 국립창원대학교의 꾸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은 탁구부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전용 구장을 비롯해 우수한 훈련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체육학과 교수진 역시 지도자와 함께 선수들의 성장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국립창원대 탁구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는 올해 한층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며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에



서 남녀팀 모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전국대회에서 우승과 금메달을 거두며 다시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어 10월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단체전에서는 남녀 동반 은메달을 따내며 값진 성과를 이뤘다. 남녀 모두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6년 만의 쾌거다.

오윤경 감독. "동반 우승을 이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당초 목표했던 전 종목 4강 진출은 이뤄내 기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투혼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를 향한 믿음 속에서 성장해온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 그들의 라켓 끝에는 언제나 승부를 넘어서는 열정과 국립창원대 탁구부의 자부심이 실려 있다.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탁구부 주요 성적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단체전(여대부) **우승**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개인 단식(여대부) **우승**

제5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개인 단식(여대부) **우승**

제5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개인 복식(대학부) **우승**

제2회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대학부/여대부) **우승**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단체전(대학부/여대부) **은메달**



국립창원대학교는 미래로 가는 중!

이희두 기획처장을 만나다.

첫인상? 학생인 줄 알았다. 하마터면 피부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정도로 최강 동안의 소유자. 국립창원대학교 기획처장과 국책사업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희두 교수를 만났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한 지 5년이 조금 넘는 40대 부교수. 실례지만...기획처장을 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요?

“사실 요즘 국립창원대 교수님들이 다 젊습니다. 정년을 맞아 한꺼번에 물러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교수진 구성을 보면 전국 대학 중에서도 유난히 젊어요. 활력이 넘치죠.”

write. 김봉임 photo. 백동민

숨 가쁜 하루 그 속에 답이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기획처장의 하루는 아침부터 바쁘다. 다섯 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걸 보고 출근. 학교에 도착하면 기획처 업무와 회의가 줄줄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거나 연구실을 지도하고, 다시 기획처로 돌아와 결재와 보고를 챙긴다. 총장 보고와 추가 회의까지 더해지는 날들이 많아 일정이 늘 가변적이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는 하루하루지만 기획처장이 된 이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너무 바쁘다는 것. 일벌레로 소문난 박민원 총장님 때문에 더 바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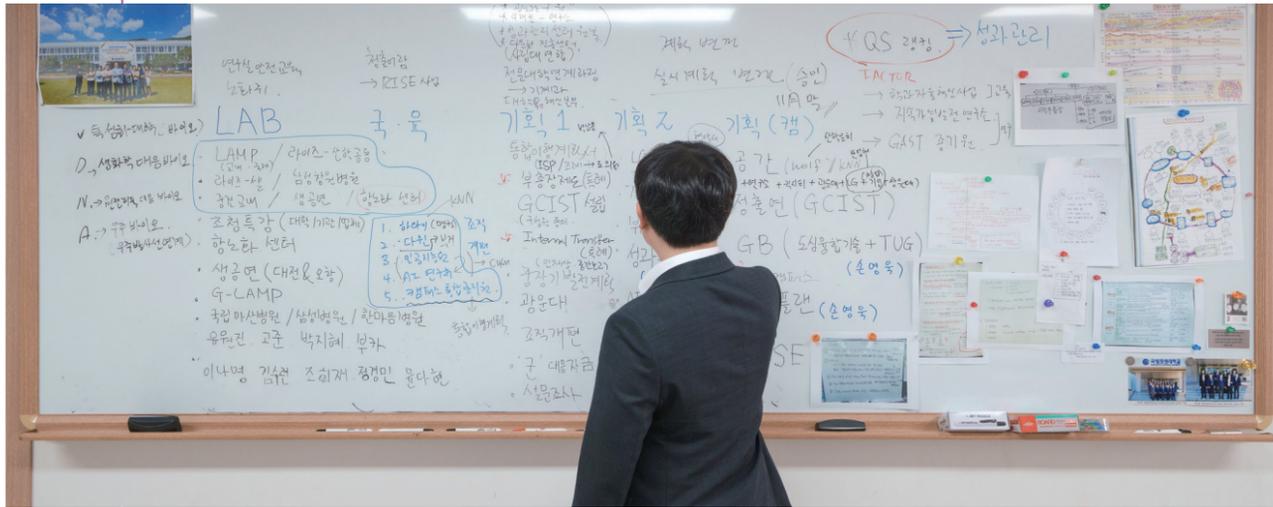
“총장님은 정말 모든 일에 열정을 쏟으십니다. 덕분에 저를 비롯한 보직자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일벌레’로 변해 가고 있죠. (웃음) 하지만 그만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국립창원대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보인다. ‘LG전자 연구동.’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국내 지방대학 최초의 LG전자 R&D센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560억 원 규모, 세계 최고 수준 HVAC 연구동이라는 간판은 단순한 건물 하나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다. ‘경남형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G전자 연구동이 언제쯤 설립되나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에 LG전자 연구동이 생기면 기업이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큼니다.”

과거에는 대학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졸업 후 공장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업들이 스스로 연구 역량을 갖추면서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사례가 흔해졌다. 그만큼 대학 교육과 기업 요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LG전자 HVAC 연구동 설립은 단순한 연구소 유치기 아니라,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길러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LG전자HVCAC연구동 #산학협력체형교육 #지역혁신연구동 #혁신연구동

“이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는 산학일체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산학이 완전히 결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현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재도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희두 기획처장이 힘주어 말하는 건 ‘산학일체형 교육 모델’이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기초 이론은 물론 최신 산업 동향까지 함께 가르치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연구하며,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아 나갈 수 있는 구조. 그래야만 진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재도약에도 필요한 전략이다. 그만큼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들이 LG전자와 협력을 원했을 터. 산학 혁신 모델을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궁금하다. LG전자가 창원대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의 한 대학도 부산시와 함께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거리가 가깝다고 국립창원대학교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산학협력 기반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 LG전자 연구동을 세울 수 있을까? 처음엔 막연한 구상에 불과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LG전자

가 창원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연구 역량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 여기에 젊은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 참여와 적극성이 더해지면서 국립창원대의 매력이 극대화됐다.

지역 대학교의 위기 혁신으로 돌파하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다. 인구 소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지금, 지역대학은 생존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립창원대학교도 마찬가지. 국립창원대학교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거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립창원대학교가 추구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거점이 된다는 건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다. 지역 산업과 문화, 인재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모델을 의미한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DNA+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이다. 방산, 원전, 자율스마트 제조 등 지역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 다캠퍼스 글로벌 혁신이다. 창원, 거창, 남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캠퍼스를 구축하고, 국립대 육성사업 2년 연속 S등급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셋째,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삼

#SSO2공간을뚫고도 #모든꿈을뚫고도 #혁신연구동

아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과 연구를 설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다시 지역을 혁신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장치이다. 결국, 국립창원대학교의 생존 전략은 ‘차별화된 특성화’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개방성’ 두 축으로 요약된다.

“지역이 살아야 지역 대학이 살고,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지역을 성장시키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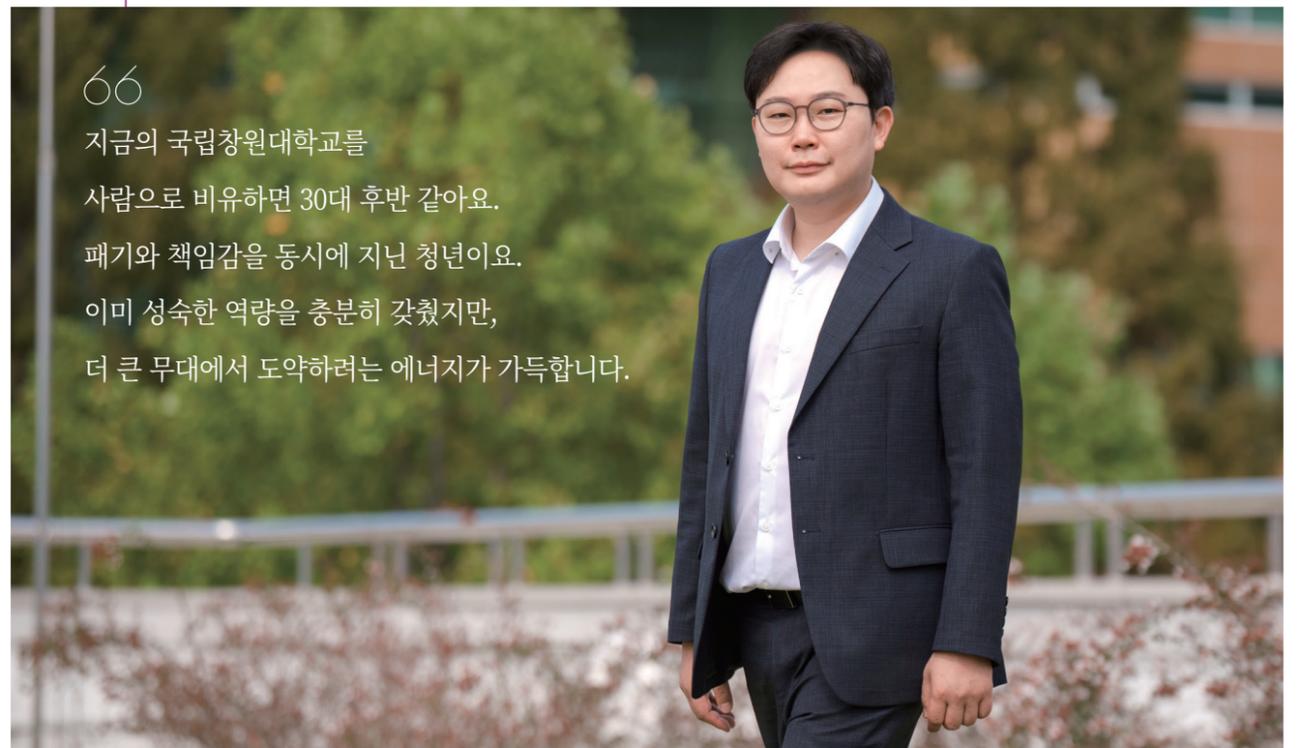
학생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자

국립창원대학교에는 ‘COSS(Consultation One Stop Store)’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상담의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아둔 ‘상담 백화점’이다. 학업 상담부터 진로 취업, 심리 상담까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다. 예전에는 상담소가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캠퍼스 중앙에 자리 잡

아 누구나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학생들의 모든 고민을 풀어주는 곳. COSS를 이희두 기획처장은 어떻게 표현할까?

“COSS는 모든 학생의 꿈을 끝까지 품어 주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학생 중심 대학을 강조한 박민원 총장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소외된 학생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학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생처, 교육혁신처, 입학취업처 등 여러 부서가 머리를 맞대어 만든 결과물이다. 국립창원대학교의 중심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선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이라는 사명감 위에 혁신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만약, 지금의 국립창원대학교를 사람의 인생에 빗댄다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66
지금의 국립창원대학교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30대 후반 같아요. 패기와 책임감을 동시에 지닌 청년이요. 이미 성숙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지만, 더 큰 무대에서 도약하려는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BNK 경남은행



은행이 잘돼야 지역이 산다.
 지역이 살아야 은행도 산다.
 짧지만 묵직한 이 말속에 그의 철학이 응축돼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
 이것이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이 세운 각오다.

write. 김봉임 photo. 백동민

지역이 살아야 BNK경남은행이 산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국립창원대학교 89학번)

* K장남의 절실함, 나는 경남은행으로 간다!

“국립창원대학교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은 주저 없이 이렇게 답했다. “나의 뿌리이자 성장의 동력.” 짧지만 묵직한 두 단어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경남은행 입행의 꿈을 품었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잡아준 뿌리가 바로 국립창원대학교라는 의미다.

“대학 시절, 경남은행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때 그 절실했던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저의 뿌리이자 성장의 동력입니다.”

김태한 은행장은 재수 끝에 국립창원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한 살 어린 동기들과 함께 다니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지방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컸다.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던 대학교 1학년 시절, 강의실보다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순간부터 달라졌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집안의 2남 2녀 중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김태한 은행장의 어깨에 얹어졌다. 절실함이 길을 만든다는 말처럼 때마침 그의 눈에 경남은행 입행 원서가 들어왔다.



* 어느 날 학과에 갔는데, BNK 입행 원서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경남은행에 입행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달라졌다. 도서관에서 시작해 도서관에서 끝이 났다. 목표가 생기자 삶의 속도가 달라졌다.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독하게 몰입했다. 목표가 생기면 돌진하는 성격 덕분에 붙은 그의 별명은 드라마 <무풍지대>의 '시라소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끝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남에게 기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목표를 세우면 제힘으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 젊고 혁신적인 리더,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태한 은행장의 첫 발령지는 울산이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신입사원은 연고가 있는 고향 근처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는 예외였다. 아무 연고도 없는 울산으로 발령이 났다. 예외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대부분 은행원들이 2년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것에 비해 그는 무려 7년 6개월을 울산지점에서 근무했다. 남들보다 세 배가 넘는 시간을 한 지점에서 근무한 이유가 궁금하다.

“현재 지점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 지점장님이 오시면 또 발령을 안 내어 주는 겁니다. 저도 참 당황스러웠는데... 아마도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좋게 봐주지 않았나 싶어요. 하하하.”

올해 4월 BNK경남은행장에 취임한 그에게 언론은 '젊고 혁신적인 리더'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단순히 다른 시중 은행장들보다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일 스타일 때문이다. 그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일까.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걸 즐긴다.

“데이터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객과 직원들을 직접 만날 때 해답을 찾곤 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과 함께! WIN-WIN**

김태한 은행장은 말끝마다 늘 '지역'을 강조한다. 은행에 '지역'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금을 받고 대출만 해 주는 보통 은행들과 BNK경남은행은 다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단순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한 축이다.

“BNK경남은행 앞에는 '지역'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역이라는 토양 위에서 있는 나무입니다. 지역이라는 토양이 윤택해야 경남은행이라는 나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는다. 실적으로 증명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BNK경남은행이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기관이 지역에 기여한 전반적인 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남에서 6년 연속 최우수를 받은 은행은 BNK경남은행이 유일하다. 이는 경남은행이 지역에 진심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역에 대한 경남은행의 사랑과 진심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김태한 은행장의 약속은 오늘도 이어진다.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 체육 활동 후원 등 지역 곳곳에 자양분을 주고 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이다.

*** 가족과 고객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김태한 은행장의 지갑에는 늘 가족사진이 들어있다.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다. 기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늘 힘이 되는 존재가 가족이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듯 고객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에 고객의 자산을 허투루 대할 수가 없다. 고객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한다. 그에게 은행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과 지역을 지켜내는 책임감이다.

“고객의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족의 미래입니다. 고객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청년 김태한은 미래가 불안했다. '지역 대학 출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도 했었다.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자신의 꿈을 이뤘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창원대학교 출신으로 지역 대표 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성적이나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경험은 평생 자산이 됩니다.”

지역이 살아야 은행도 산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 그는 숫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오 늘의 이익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미래가 더 소중한 가치이다. 다시 태어나도 BNK경남은행에 입사하고 싶다는 열정 맨. 김태한 은행장의 꿈은 무엇일까?

제가 사랑하는 BNK경남은행을 더 단단하고 멋진 조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캠퍼스, 공원이 되다

국립창원대 학내 공원조성 총괄, 이승준 팀장을 만나다.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가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예뻐졌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정문 앞의 무단 경작지, 방치된 숲,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 공간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앉아 웃고,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는 공원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국립창원대 시설과 이승준 팀장이 있다.

write. 김보배 photo. 백동민



학교는 공원이어야 한다.

“누구나 와서 앉아 쉴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곳. 차는 절제되고, 사람은 자유로운 곳. 그게 제가 생각하는 캠퍼스의 모습이에요.” 이승준 팀장은 국립창원대 시설과 토목팀의 팀장이자, 학내 공원 조성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자다. 그는 지난 1년 4개월간 캠퍼스 곳곳을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끌어왔다. 창원천 둘레길을 시작으로 나구스공원, 탁청대공원,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친수공간과 다원연구소까지 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공원 같은 캠퍼스를 향한 첫걸음

이 팀장이 맡은 ‘캠퍼스 공원 조성 사업’은 박민원 총장의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2024년 초, “정문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시는 곧 대대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우선 정문 주변의 불법 경작지를 정리하고, 창원천을 따라 아자메트 길을 조성했다. 그 길은 학생들이 공학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캠퍼스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이어 정문 맞은편, 향량하게 방치됐던 공간은 ‘만남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잔디와 나무, 벤치가 들어서자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문은 통과 차량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폐쇄됐다. 불과 1년여 사이, 국립창원대 정문은 ‘차량의 관문’에서 ‘사람을 위한 입구’로 바뀐 것이다. “캠퍼스는 본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정문이 단순히

차가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학생과 주민이 머무는 시작점이 된 거죠.”

기억을 품은 공원, 나구스와 탁청대

이 팀장이 꼽는 대표 성과 중 하나는 ‘나구스공원’이다. ‘나를 구경하는 스탠드’라는 뜻의 이름은 박민원 총장이 직접 지었다. 잠시라도 자연을 보며 멍하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한다. 과거 쓰레기와 무단 경작으로 방치되던 공간을 꽃밭과 산책로로 꾸미고, 스탠드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봄이면 유채꽃이, 여름이면 백일홍이 만개하는 모두의 힐링 공간이 되었다. 또 다른 공간은 ‘탁청대공원’이다. 동백관 옆, 그늘지고 음침했던 숲을 정비해 만든 공원으로, 우연히 발견된 ‘탁청대 비석’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고려 말 창원향교 앞에 세워졌던 이 비석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탁청대공원은 예전에 학생들이 단순히 통행로로만 지나던 곳이거든요. 요즘은 학생들이 거기에 돛자리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해요.” 그가 최근 가장 공들이고 있는 곳은 정문 친수공간이다. 수반과 조명을 활용한 설계로 밤에 더 빛을 발하는 캠퍼스의 새로운 얼굴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친수공간이 완공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캠퍼스 정문이 될 거예요.” 불법 경작지를 정리한 자리에 들어서 는 다원연구소도 기대작이다. 찰스 다원에서 이름을 따온 이 연

구소는 스마트 팜과 우주환경 모사 체임버를 갖춘 첨단 바이오 연구시설로 장차 ‘생명과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라고 한다.

공원에서 배우는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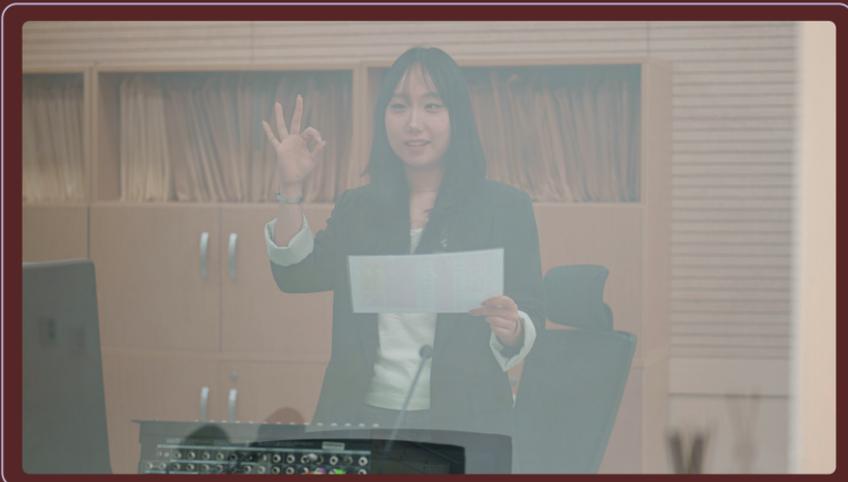
“사실 학교가 이렇게 급변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도 많이 달라졌지만 조성 사업이 끝나는 4~5년 뒤에는 아마 새로운 캠퍼스가 펼쳐질 겁니다.” 2007년부터 국립창원대에 몸담아온 그는, 오랜 세월 익숙했던 캠퍼스가 눈앞에서 달라지는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다. 물론 지난 1년 4개월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현장은 날마다 새로운 변수의 연속이었고, 공사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안전’이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팀장은 매일 아침 현장을 점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했다. “현장은 늘 변수 투성이예요. 도면대로만 진행되지 않죠. 하지만 안전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자신에게도 새로운 배우의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기존 시설 관리 업무만 하던 팀원들이 공원 조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유지·보수 중심의 일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 만들어가며 배우고 있어요. 직원들에게도 이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넘어, 사람을 위한 일

이승준 팀장이 그리는 4~5년 뒤의 국립창원대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원 같은 캠퍼스’다. 그는 최근 캠퍼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공간을 바꾸는 일은 곧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 공간을 보면 ‘이 벤치에 누가 앉을까’, ‘이 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를 먼저 떠올리게 됐어요. 공간은 사람을 바꾸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나구스공원에 앉아 있는 학생을 보면 그 표정이 예전과 많이 달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활용되지 않던 공간이 바뀌고, 그곳에 학생들이 앉아 웃고,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는 모습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말에서 책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4년 내내 본인 학과가 소속된 캠퍼스만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국립창원대생들은 인문대생이 공대 캠퍼스로, 자연대생이 예술대 캠퍼스로, 또 공대생이 사회대 캠퍼스로 가보면서 모든 공간을 경험했으면 해요. 학생들이 모든 캠퍼스를 다 가보고 싶도록 저는 공간을 이어주고 싶습니다.” 꽃과 길 그리고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캠퍼스. 이승준 팀장이 그리는 공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곧 교정에는 또 다른 계절의 빛이 피어날 것이다. 그 빛 속에서, 모두가 머물고 싶은 국립창원대 캠퍼스의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도전을 즐기는 젊음, 무대를 꿈꾸는 청춘

김수빈 문화테크노학과 학생



“도전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밝게 웃는 김수빈 학생의 말에는
설렘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국립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3학년인 그녀는
서포터스, 방송국 PD, 축제 홍보, 공모전까지
쉽 없이 도전하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 도전으로 물든 청춘의 기록을
써 내려가는 그녀의 대학 생활을 따라가 보자.

write. 김보배 photo. 백동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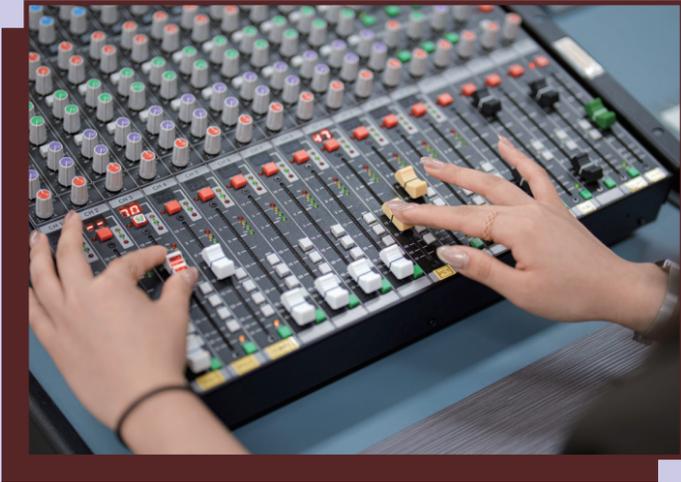
“저는 도전을 즐기는 대학생입니다”

김수빈 학생은 자신을 “도전을 즐기는 대학생”이라 소개한다. 1·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학과 수업과 성적 관리에 집중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서,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미뤄두었던 활동들에 하나둘 도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서포터스 같은 대외활동을 보면서도 ‘나중에 해봐야지’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3학년이 되니,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부터 해버렸어요. 이미 지원한 이상 제가 끝까지 해낼 걸 아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도전을 늘려갔어요.” 그녀의 말처럼, 김수빈 학생의 대학 생활은 도전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서포터스 활동에서 배운 것들

처음 발을 디딘 무대는 서포터스 활동이었다. 창원로컬 서포터스, SW중심대학 서포터스,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기업 홍보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을 누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역 기업 홍보 프로젝트였다.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해 직접 기업을 찾아가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대표를 인터뷰하며 홍보 영상을 만든 경험은 큰 의미로 남았다. “처음에는 학생이 기업 홍보를 해도 될까 걱정했는데,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서포터스 활동은 단순한 경력 쌓기가 아니었다. 기업과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 즉 콘텐츠를 기획력을 기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좋은 콘텐츠는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포터스 활동으로 직접 부딪치고 도전하며 알게 된 거죠.”





방송국 PD, 책임감을 배우다

김수빈 학생은 국립창원대방송국(CUB) 정국원 PD로도 활동하고 있다. 매주 두 차례 라디오 방송을 직접 기획·연출하는 그녀는, 방송 대본 작성에서 송출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저의 작은 실수 하나가 방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또 책임감을 갖게 되죠. 방송국 활동은 단순한 교내 활동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축소판 같아요.” 방송국에서의 경험은 협업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었다. 팀원들과 방송 시간을 조율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켜가며 완성하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값진 배움이었다. 그녀에게 방송국은 단순한 동아리가 아닌, ‘프로의 세계를 미리 경험하는 무대’인 것이다.

무대와 현장, 몸으로 부딪친 경험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땀 흘리며 배웠다. 부산바다축제와 문화 다양성 축제 MAMF(맘프)에서 홍보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촬영과 인터뷰, 편집까지 도맡았다. “한여름 부스 안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며 일했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시민들이 ‘고생한다’, ‘멋지다’고 해주실 때 힘든 게 다 잊혔죠.” 현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자 아닌, 기획자로 성장하기 위한 ‘실전 교실’이었다. 기획·촬영·운명을 직접 겪으며 무대를 만드는 과정의 치열함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배운 것이다.

공모전에서 입증한 기획력

그런 도전의 결과는 곧 성과로 이어졌다. 얼마 전 김수빈 학생은 ▲전공탐색 영상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MAMF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캠프 우수상 등 교내외 여러 상을 휩쓸었다. 특히 MAMF 공모전에 냈던 ‘VR 체험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은 축제인데, 기존 체험은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그래서 VR로 몰입감 있는 체험을 만들면 아이들이 훨씬 즐거워할 거라 생각했죠.” VR을 활용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자는 그녀의 아이디어는 내년 MAMF에서 실제로 실현될 예정이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인정받으며, “좋은 콘텐츠는 결국 사람의 흥미를 움직이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낸 결과였다.

전공과의 연결, 배움의 확장

다양한 대외활동들은 김수빈 학생의 전공 수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실제로 기업 홍보 서포터스 활동을 하면서 전공과목 ‘기업문화혁신’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험도 있다. “<무학>을 주제로 홍보 팸플릿을 제작했는데, 서포터스 경험 덕분에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니즈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결국 과제에서도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죠.” 그야말로 학교 안팎의 배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경험이 다시 배움이 되는 선순환 속에서 그녀는 한층 더 성장하고 있었다.

무대를 향한 꿈

김수빈 학생의 꿈은 장차 무대 기획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김해 공연기획사 ‘마르떼’ 사업단 활동에 참여하며, 창원시민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 홍보와 운영을 경험하고 있다. “무대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언젠가는 제 이름이 걸린 공연을 올려서 그 무대에 학우 여러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짧은 대학 생활 속에서 김수빈 학생은 쉽 없이 도전하며, 서포터스·방송·공모전·봉사 현장을 두루 경험하고 있다.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모습은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대학 생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패보다 경험이 더 값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젊음의 교과서다. 앞으로 김수빈 학생이 만들어갈 무대는, 지금껏 그가 보여준 도전만큼이나 뜨겁고 활기찬 것이다. 국립창원대학교의 청춘, 김수빈 학생의 다음 무대가 기다려진다.

무대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언젠가는 제 이름이 걸린 공연을 올려서 그 무대에 학우 여러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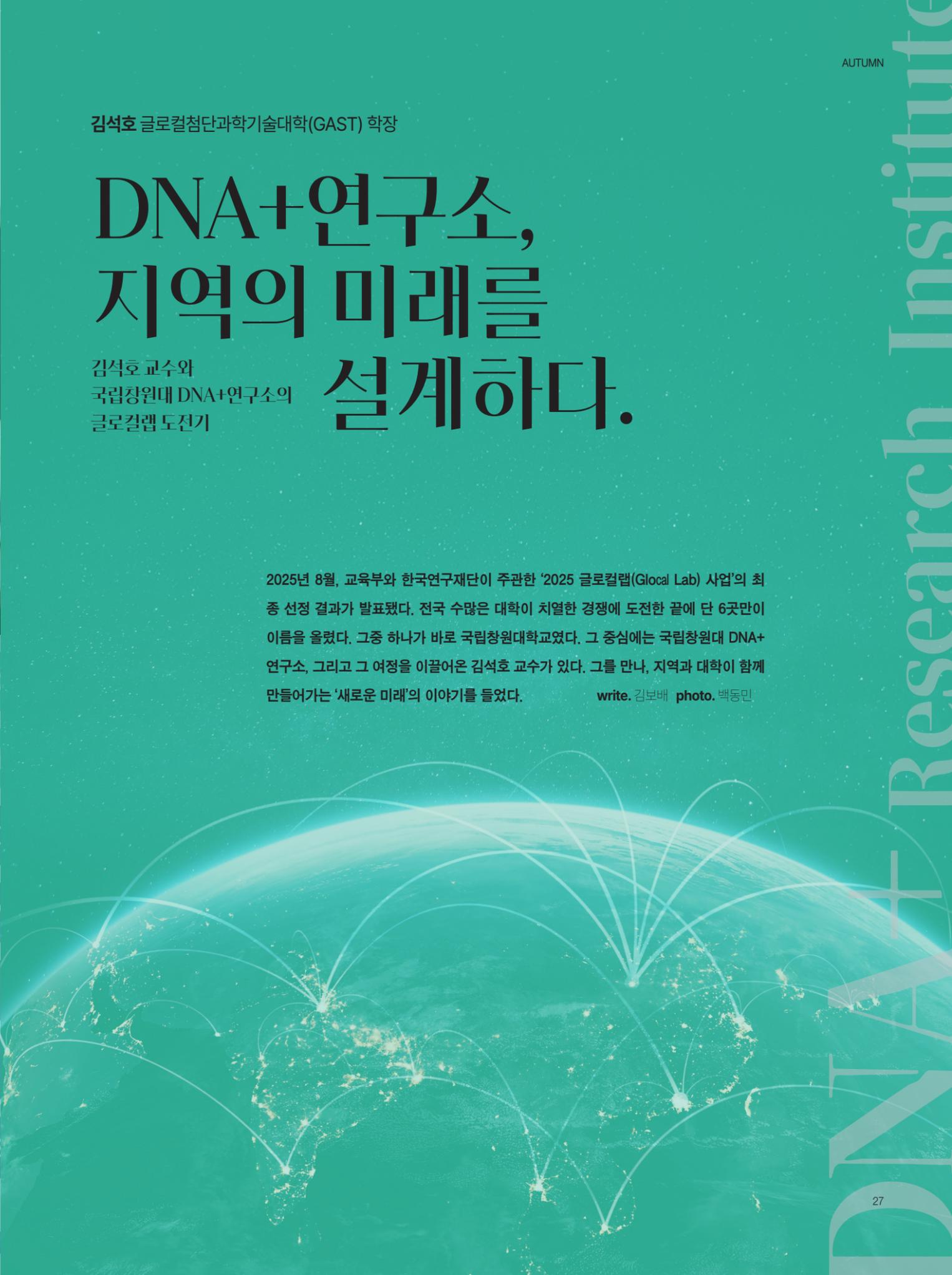


김석호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GAST) 학장

DNA+연구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다.

김석호 교수와
국립창원대 DNA+연구소의
글로벌랩 도전기

2025년 8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5 글로벌랩(Glocal Lab)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 수많은 대학이 치열한 경쟁에 도전한 끝에 단 6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립창원대학교였다. 그 중심에는 국립창원대 DNA+연구소,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끌어온 김석호 교수가 있다. 그를 만나,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들었다. write. 김보배 photo. 백동민



Research Institute

전국 단 6곳, 창원대가 들어 올린 쾌거

‘글로벌랩 사업’은 단순한 연구비 지원 사업이 아니다. 최대 9년간 1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문화·사회와 맞닿은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이 담겨 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립창원대 DNA+연구소가 이름을 올린 것은, 단순히 ‘선정됐다’는 결과를 넘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수도권 중심의 연구 생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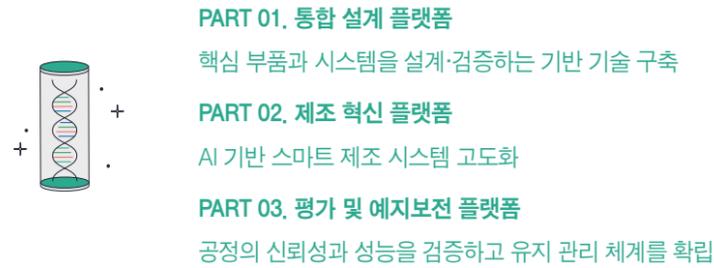
왜 방산이었을까

글로벌랩 사업의 핵심은, 각 대학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 DNA를 살린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립창원대 DNA+연구소가 방위산업을 중심에 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창원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으로서 불려왔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정밀기계·금속·전기·전자 등 제조 기반이 한 도시 안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K방산 수출 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이 산업은 창원 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돌파구로 떠올랐다. “전 세계 제조업 중심 도시 중 쇠퇴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디트로이트, 기타큐슈… 창원도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죠.” 김석호 교수의 말에서는 위기감과 절실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창원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으로서 불렸지만,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랩 선정은 ‘창원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붙잡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AI 기반 제조 혁신으로 창원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김석호 교수(첨단과학기술대학 학장 겸 연구소장)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DNA+연구소 — 방산·AI·제조업의 융합 허브

연구소의 이름 ‘DNA+’는 창원의 산업 정체성을 그대로 품고 있다. Defense(방산), Nuclear(원전), Autonomous Manufacturing(자율제조). 여기에 인공 지능(AI)을 더해,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연구소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학, 예술, 인문학의 융합을 강조한다. 김 교수는 “냉장고나 TV도 이제 단순한 성능보다 디자인과 감성으로 차별화되는 시대잖아요. AI가 제조를 주도하는 시대에는 기술뿐 아니라 철학과 윤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라며, 철학과·디자인학과 교수들과의 협업이 중요함을 얘기했다.

사람을 키우는 연구, 미래를 키우는 대학

김석호 교수가 말하는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기술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을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갈 방법에 닿아 있다. 그래서 그는 기술 도약의 핵심이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은 결국 인재 양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연구 인건비를 지원받고, 전일제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랩 사업 선정으로 보다 든든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연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것이 김석호 교수가 그리고 있는 창원의 미래다.

산학협력에서 산학일체로

DNA+연구소는 단기 목표와 장기 비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AI 기반 제조 플랫폼을 지역 기업에 신속히 적용하고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전해 중소기업에도 설계·제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경남과 창원을 글로벌 방산·제조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김 교수의 비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기업과 대학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연구하는 ‘산학일체’ 모델”을 제시했다. “병원의 의사가 교수이자 임상의사로 활동하듯, 대학교수도 기업 연구원으로, 기업 연구원도 대학 강사로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사과정 학생은 기업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기업 연구원은 대학 강의에 참여하는 구조죠.” 이 모델이 자리 잡는다면,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 그 변화는 곧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의 말처럼, 국립창원대 DNA+연구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산업과 사람 그리고 대학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서, 창원은 다시 한번 미래의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함께 키우다.

정장영 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 대표



2011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립창원대학교에 발전 기금을 꾸준히 기탁해 온 기업이 있다. 운반·하역설비 분야의 글로벌 강소기업 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는 지금까지 총 1억 7,500만 원을 후원하며 지역 대학의 발전과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왔다. 정장영 대표는 “지역의 미래는 결국 지역 인재에게 달려 있다”는 신념으로, 기술과 사람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함께 키워왔다. 그 꾸준한 신념과 실천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정장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write.** 김달남 **photo.** 백동민

지역에서 세계로, 기술로 성장한 강소기업

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는 2007년 7월,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의 운반·하역설비 부문을 승계하며 설립된 기업이다. 발전소와 제철소, 항만하역기계 등 운반설비 분야의 설계부터 제작,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EPC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넘게 해당 분야를 전담해 온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기술력과 품질에서 국내외 고객의 신뢰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크레인 연구를 통해 미래 항만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4년에는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부두 구축사업(총 1,535억 원 규모)을 수주하며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거두

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산화·자동화·친환경화를 모두 아우르는 첨단 항만 기술로, 창원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에스엠에이치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연구 개발과 교육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에 있다. 정장영 대표는 모든 구성원이 핵심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 기업도,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 장 영 대표이사

2007년 에스엠에이치(주)를 창립해
운반·하역설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회사를 창원의 대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이천만불 수출의 탑',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창원상공대상(경영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창원대학교와의 인연,
그리고 기탁의 시작**

정장영 대표와 국립창원대학교의 인연은 2007년,
회사 창립 직후 시작되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회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국립창원대 기계공학과에서
CEO 특강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회사를 믿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 한 번의 인연이 제겐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 강연을 계기로 에스엠에이치는 국립창원대 학생
들과 뜻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강연을 들었던 세

명의 학생이 그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며, 젊은 인
재들의 열정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창업 당시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었는데, 국립창원대 출신 신입사원들이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와준 게 고맙어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이후 정장영 대표는 당시 안병규 국립창원대 발전협
력위원장을 만나 발전기금 제도를 알게 되었고, “학교
와 학생들에게서 받은 용기를 다시 돌려주고 싶다”
는 마음으로 2011년부터 발전기금 기탁을 시작했다.
그의 기부는 지금까지 총 1억 7,500만 원에 달한다.

“국립창원대학교의 2024년 글로벌대학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국립창원대의 발전은 지역 기업과 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은 기계산업의 본산지이기에,
국립창원대 기계공학도들이
대한민국 최고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철학

정장영 대표의 경영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일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고 믿는다. 현재
에스엠에이치 임직원의 90% 이상은 경남 출신으로,
정 대표는 이를 “지역의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지역
의 미래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회사 운영 전반에도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에스엠에이치는 직원들이 입사 이후에도 역량
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특히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학자금 지원 제
도를 마련해 학사 출신 직원들의 석사 과정 이수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재직자 32명 중 9명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처럼,
모르면 알 때까지 함께 가자고 다짐하죠.”

정 대표의 철학은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으로
향한다. 그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의 청년들은 자신이 자란 곳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 마음을 키워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1,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을 때 학생들이
‘우리 지역 기업이 이런 성과를 냈구나’ 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합니다.
학교와 기업이 함께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이 다시 지역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정장영 대표의 말처럼,
지역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기술과 교육 그리고 따뜻한 나눔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에스엠에이치의 발걸음은
오늘도 국립창원대학교의 발전과, 그곳에서 자라는 인재들의
내일을 향해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가을이 오면... 꿈이 커진다.



2025년 이 가을,
국립창원대학교는 '변화'라는
이름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더 새로운 비전, 더 새로운 캠퍼스,
더 새로운 꿈이
오늘 이 가을에 차곡차곡 쌓인다.
노란 나뭇잎은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희망의 씨앗은 자란다.

그 씨앗의 이름은
바로 당신의 내일이다.
경남의 중심! 세계로 뻗어가는
국립창원대학교의 미래다.



국립창원대학교 × LG전자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의 연구 생태계



지역 혁신의 새로운 바람

2025년 9월 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승홀. 경상남도와 국립창원대학교 그리고 LG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산·학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린 이날은 지역 산업혁신의 새로운 장이 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협약의 핵심은 LG전자가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 캠퍼스 내에 '냉난방공조(HVAC)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연면적 1만 3,200㎡, 약 4,000평 규모의 이 연구센터는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업 연구시설을 넘어 산·학·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LG전자가 지방 국립대학 안에 직접 대규모 R&D 거점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로, 이는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과 산·학·협력의 가능성을 입증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연구센터는 차세대 냉난방공조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재 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협약을 계기로 국립창원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열린 혁신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기업과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문장은 이날 협약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였다. LG전자는 기술 혁신을, 국립창원대는 인재 양성을, 경상남도는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립했다.

지산학이 함께 여는 미래 기술의 중심

#5대코어테크 #지산학상생 #지역혁신허브

미래 기술을 위한 5대 코어테크 허브

연구센터의 연구 방향은 분명하다. 히트펌프, 칠러,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등 차세대 냉난방공조 기술을 집중 연구하며, 특히 압축기·모터·펌프·열교환기·인버터의 '5대 코어테크'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 기술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핵심 에너지 설루션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기술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센터에는 극한의 추위부터 열대기후까지 구현 가능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극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냉난방공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센터·주거·상업 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 기술을 창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센터 설립을 계기로 생산-판매-유지보수-교육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HVAC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학협력에서 지역-산업-대학 상생으로

이 협약은 지난해 경남도의 RISE(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성과 위에서 출발했다. 당시 국립창원대는 LG전자와 함께 '글로벌대학기술센터'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수요 기반 연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구센터 설립은 그 협력의 확장판이자, '지산학(지역-산업-학문) 협력'의 구체적 모델로 자리 잡는다. 기업은 우수한 지역 인재와 연구 자원을 직접 활용하고, 대학은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 생태계의 탄생이라 평가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기업과 인재 유치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기회"라며 "LG전자를 시작으로 원전·조선·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산업의 전환점

#지속가능한혁신대학 #산학상생 #미래산업허브



국립창원대학교, '지속 가능한 혁신 대학'의 교두보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이번 LG전자 HVAC 연구센터 유치는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과 맞춤형 인재 양성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대표 기업과 함께 경남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성 LG전자 ES 사업본부장 역시 "시장보다 두 배 빠른 압축 성장을 위해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민관 산학협력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향후 글로벌 대학30 사업과 RISE 체계를 적극 연계해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 청년 정착,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결국 이번 협약은 하나의 연구센터 설립을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산업의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봉림대동제-필연, 우연의 조각이 하나로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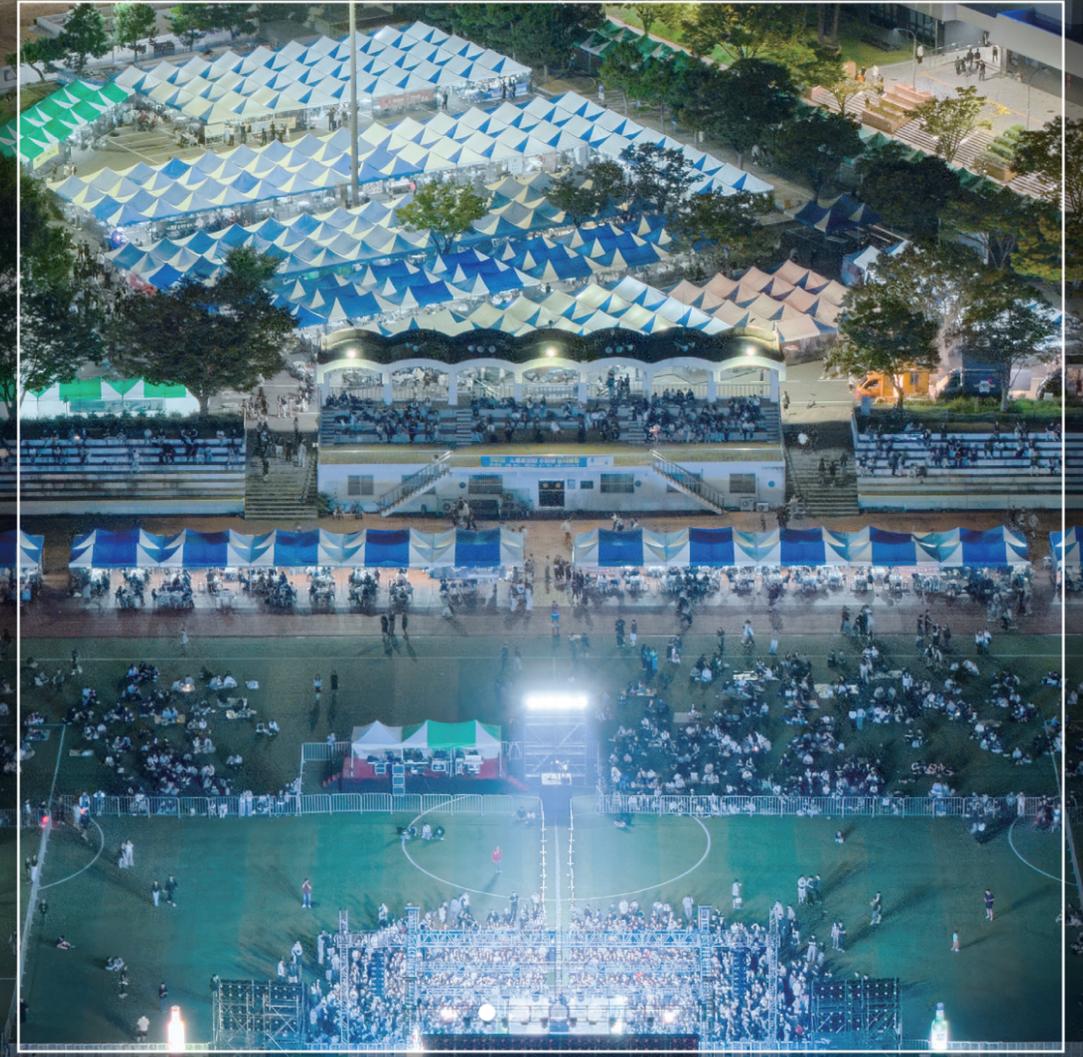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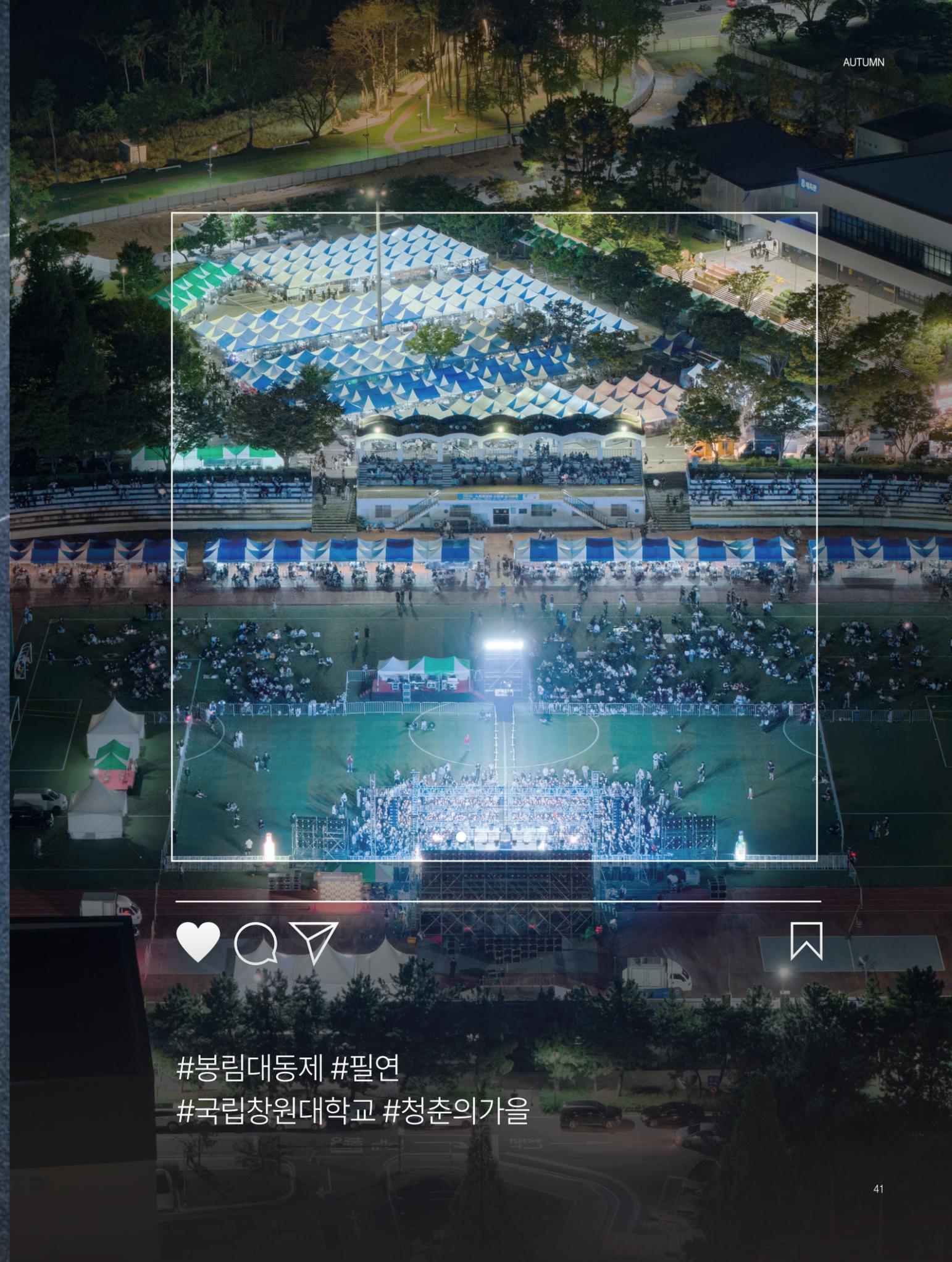
축제 이모저모

가을의 빛이 물든 캠퍼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창원대학교는 청춘의 웃음으로 반짝였다.

‘2025 봉림대동제-필연.’
우연처럼 스친 인연들이,
결국 만나야 할 이유를 찾은 시간이었다.
대운동장과 잔디밭, 밤하늘 아래의 무대까지
모든 공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부스의 웃음소리, 노래와 불빛,
그리고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의 손끝.
그 모든 순간이 ‘함께’라는 단어로 묶였다.

짧았지만 뜨거웠던 3일.
그 시간은 우리 모두의 청춘을,
그리고 국립창원대의 가을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었다.



#봉림대동제 #필연
#국립창원대학교 #청춘의가을



이슈&스토리 국립창원대 안바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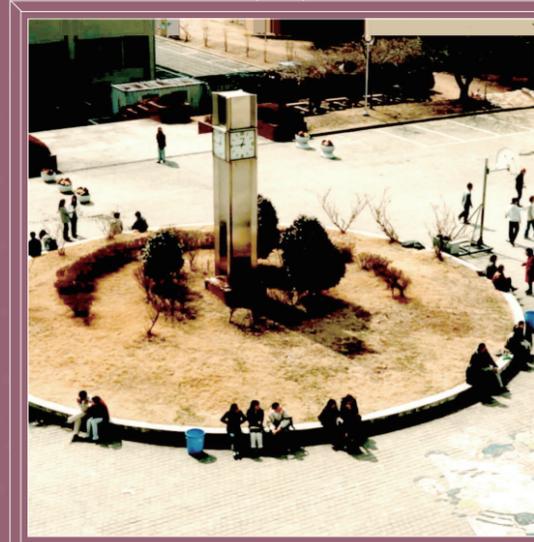


가을빛 머문 캠퍼스, 웃음과 노래가 하루를 채웠다.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은 필연이 되었고,
그 순간 국립창원대의 청춘은 가장 찬란히 빛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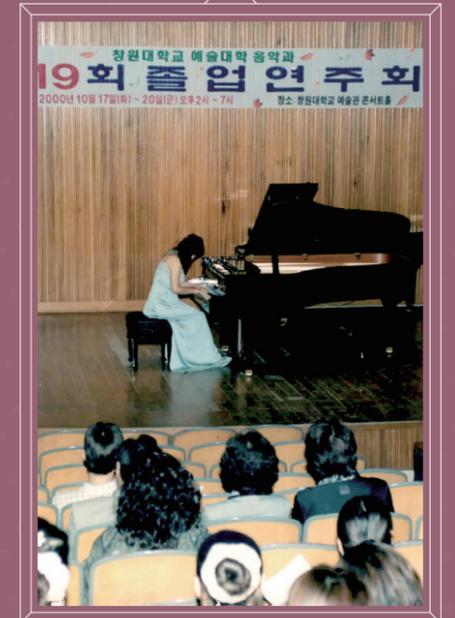
1



2



4



5



3



6

추억속의 그때 그-시절

- 국립창원대 가을 시즌 -

1 축제주점부스

2 봉림관 앞 광장

3 사림관 개관식

4 체육관 뒷편 전경명

5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연주회

6 제1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개강식

키워드로 알아보는 CWNU HOT ISSUE



국립창원대학교와 LG전자가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지방대학 최초 'HVAC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연면적 1만 3,200㎡ 규모의 이 센터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에어컨부터 히트펌프,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까지 차세대 냉난방공조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500억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에서 열린 'GICC 2025 인더스트리데이'에 참가해, NTU 부총장단과 **'WOLF 캠퍼스'** 조성을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국립창원대는 NTU가 유일하게 간담회를 연 기관으로, 지역 거점형 글로벌 R&D 허브 구축 방안과 세계적 대학·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WOLF 캠퍼스

국립창원대학교는 글로벌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WEEK: 전공대탐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등 지역 대학과 창원·마산·김해 등지의 고등학생이 함께하며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다.



전공WEEK:
전공대탐험

국립창원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659명 모집에 1만 26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19 대 1**을 기록하며 최근 7년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가 10.7% 증가한 이 수치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6.19:1



국립창원대학교는 미래의 국립창원대 학생, 재학생 등 학생 중심의 대학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을 위해 '국립창원대 공식 **SNS 학생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SNS 학생

크리에이터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2025년 **글로벌랩** 사업'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AI 기반 방산제조 혁신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방산, 원전, 스마트 제조 분야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글로벌랩

Glocal Lab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은 "이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참여는 국립창원대가 지역 산업의 중심에서 AI 융합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형 고급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임진왜란 이후 약 **40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이웃이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마을은 1982년 국립창원대학 부지 조성을 계기로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꺼이 마을을 떠났던 헌신 덕분에 국립창원대는 오늘의 캠퍼스를 마련하며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었다.

400년

2025 하반기, 국립창원대에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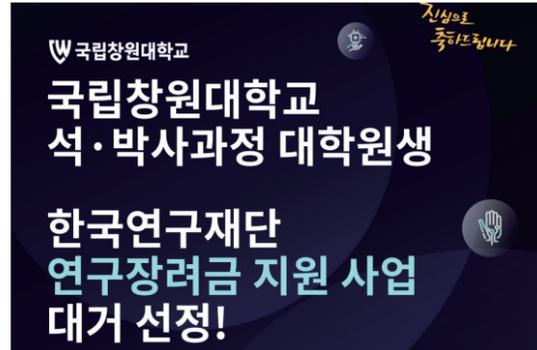
지금 꼭 알아야 할 국립창원대 소식을 정리했어요.

NEWS



국립창원대-LG전자, 지역 대학 첫 연구센터 'HVAC 연구센터' 설립!

국립창원대학교와 LG전자가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 캠퍼스 내에 'HVAC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연면적 1만 3,200㎡ 규모의 이 센터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에어컨부터 히트펌프,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까지 차세대 냉난방 공조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특히 컴프레서, 인버터 등 5대 핵심 부품의 고도화 및 환경 규제 대응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 공동 프로젝트, 학부 연계 교육,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은 KBS,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혁신 모델"로 주목되었으며, 국립창원대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톱티어 공조 전문 연구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이 기술을 키우고, 기술이 다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 이는 대학-산업-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립창원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사업 대거 선정

국립창원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학원생 3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7명, 석사과정 23명으로 구성된 이번 선정은 이 공계와 인문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국립창원대 대학원생들의 기초 연구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선정된 학생들은 1~2년간 최대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교수의 지도 아래 개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토목, 환경, 소재, 제어계측 등 다양한 공학계열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국립창원대는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강화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 생태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립창원대는 앞으로도 "연구가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립창원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최고 성과 달성!

국립창원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659명 모집에 1만 26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19 대 1을 기록하며 최근 7년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가 10.7% 증가한 이 수치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민원 총장 취임 이후 대학은 글로벌대학30, G-램프, SW 중심대학, 글로벌, 국립대학육성사업 S등급 등 다수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잇달아 선정되었다. 또한 LG전자 HVAC 연구센터 설립,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개교 등으로 교육 및 산학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성과가 수험생과 학부모, 교교 현장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입학취업처 박상희 처장은 "수시모집 최고 경쟁률은 위기 극복의 대표 사례"라며 "산학일체형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생이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국립창원대, BK21 '인공지능' 분야 예비 선정... 지역 AI 대전환 본격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혁신 인재 양성사업 '인공지능' 분야에 예비 선정됐다. 'DNA²⁺ 인공지능융합 교육연구단(단장 유선진 교수)'은 경남 창원 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신설된 대학원 인공지능융합공학과를 중심으로 다학제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AI 윤리 과목도 필수로 편성했다. 석·박사과정생은 장학금 외에도 학술대회, 글로벌 연수 등 다양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되며, 연구단은 연 1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확보한다. 중견·신진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실무 중심 고급 AI 인재 양성이 기대된다. LG전자 HVAC 연구센터 등 산학 프로젝트와의 연계로 실효성 있는 교육·연구 환경도 갖췄다. 이번 선정은 대학-산업-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역 기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예비 선정을 계기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AI 허브로 도약할 예정이다. 연구와 교육, 산업이 맞는 현장에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국립창원대학교, 새로운 도약!

NEWS



국립창원대,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WOLF 캠퍼스' 구축 협력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NTU)에서 열린 'GICC 2025 인터스트리데이'에 참가해, NTU 부총장단과 'WOLF 캠퍼스' 조성을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국립창원대는 NTU가 유일하게 간담회를 연 기관으로, 지역 거점형 글로벌 R&D 허브 구축 방안과 세계적 대학-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박 총장은 직접 그린 개념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NTU와의 실질적 협력을 제안했고, NTU는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D.N.A+ 분야의 인재 양성 비전에 공감했다. 박 총장은 "NTU 처럼 국립창원대도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혁신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연구와 교육, 산업이 함께 연결되는 '글로벌 WOLF 캠퍼스'를 통해 세계 속의 국립창원대로 도약할 것이다.



국립창원대, 지역과 함께한 '전공WEEK: 전공대탐험' 성황리 마무리
 국립창원대학교는 글로벌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전공WEEK: 전공대탐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등 지역 대학과 창원·마산·김해 등지의 고등학생이 함께하며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다. 전공박람회, 커리어 토크콘서트, 전공오픈DA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상담·체험·강연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이해를 높였다. 졸업생과의 진로 상담, 학과 실습실 개방, 체험부스와 이벤트 참여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전반에 통합 대학 출범의 의미를 담아 지역과 대학의 상생 메시지를 강조했다. 박민원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성장 DNA를 발견하고 미래 진로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창원대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꿈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글로벌 인재양성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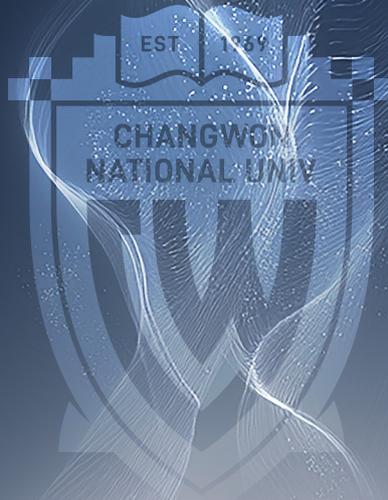
국립창원대, 기초연구사업 다수 선정...R&D 경쟁력 강화 기대
 국립창원대학교 교수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중견연구(창의연구형)에는 송태권·오승윤·이경·이인한·장영훈·정해성·최원중·허석환 교수가,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에는 심성현·김지미·이주용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도전적 연구 분위기 확산과 차세대 연구 인재 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와 연구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연구 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구문화 정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다양한 학문 간 융합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과학의 토대를 다지고, "연구가 곧 혁신이고, 혁신이 곧 미래다"라는 가치 아래 세계 수준의 R&D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다.



국립창원대, 경남 유일 '글로벌 사업' 최종 선정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2025년 글로벌 사업'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총괄연구책임자 김석호 교수가 이끄는 DNA+연구소는 9년간 총 180억 원을 지원받는다. AI 기반 방산제조 혁신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분야 고급 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지역 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 체계, 학문후속세대 성장 단계별 지원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국립창원대의 특화 방향성과 협력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박민원 총장은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 모델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첨단화와 연구 인재 양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연구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더 큰 미래가 온다

LG전자 HVAC연구센터 설립



**산업-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창원대학교의 더 큰 미래가 시작된다.

경남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한

담대한 꿈이 펼쳐진다.